

손상의 역학과 대책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Injury

김순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손상은 조기사망 및 장애로 인한 인력손실, 질병부담과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크지만 정부, 의료인 및 보건학 전문가들은 손상 문제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손상에 관한 연구현황, 역학 및 대책 현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법: 손상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손상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우리나라에서 손상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 9편, 80년대에 5편, 90년대에 4편, 2000년대에 5편으로 매우 드물었다. 인구 십 만 명당 손상 사망률은 영국,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더 높았고, 특히 자동차사고, 자살과 추락사고가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연도별 사망률의 추세를 보면 자동차사고가 가장 높았으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자살은 점차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자동차사고보다 높아 손상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추락사고는 자동차사고 다음으로 높았으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2003년 우리나라의 10대 사망원인 중 5위는 자살, 7위 운수사고, 10위 추락사고였다. 연령대별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1-9세와 10대에서는 운수사고가 1위였고, 20대와 30대에서는 자살이 1위였으며 각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추락사고, 익수사고, 타살, 화재사고가 10위 내에 들었다.

손상의 발생현황에 관한 연구나 조사는 매우 드물어 인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예방현황을 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손상감시체계(Injury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하여 손상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감시체계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핀란드, 영국,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손상에 관한 감시체계나 구체적인 예방대책은 없고, 단지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정책과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었다. 최근에 자살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2003년 12월에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창립되었고, 자살보도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

결론: 자살, 운수사고와 추락사고가 각각 10대 사망원인에 들어 손상의 문제가 심각하였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수위를 차지하여 더 큰 부담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손상의 발생현황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매우 드물어 손상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선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사회학적, 보건학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